

해외의약뉴스

벤조디아제핀 장기복용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증가시킨다.

개요

BMJ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인 벤조디아제핀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키워드

노인, 치매, 알츠하이머병, 벤조디아제핀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의존성의 주요 원인인 치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6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수치는 인구증가로 인해 2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억 천 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위험 인자를 분별하는 것은 치매의 이러한 중대한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벤조디아제핀 사용자 중 치매 발생 위험성 증가가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작용 기전과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투여량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로 불안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은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서 사용되고 있다. 벤조디아제핀의 강력한 금단증상과 더불어 아직 벤조디아제핀의 장기적 사용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침은 약물의 단기적 사용만을 권장하고 있다.

벤조디아제핀이 기억이나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더라도, 치매 증상 발병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벤조디아제핀이 처방되어지는 불안,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들 역시 치매로 진단되기 수년 전부터 경험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연구는 알츠하이머 환자 1,796명을 6년간 추적조사 하였다.

연구진은 캐나다 퀘벡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벤조디아제핀을 처방 받은 노인들 중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을 추적하였다.

6년이 넘는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6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케이스는 나이, 성별, 추적조사 기간에 따라 구분되었고, 건강한 대조군 7,184명의 사례와 비교되었다.

연구 결과, 3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벤조디아제핀 사용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최대 5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커진다. 작용 시간과 관련하여, 지속성 벤조디아제핀이 속효성 벤조디아제핀 보다 이러한 위험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의 발병을 암시하는 증상(예를 들면, 불안, 우울증과 수면 장애 등)을 조절하는 것이 "의미 있게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한다.

연구자들은 특히 원인과 결과가 혼재하는 "인과 관계의 역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였지만, 그들은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치매의 원인이 아닌 위험증가와 관련된 상태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자는 그들의 연구결과가 "공중 보건에 중요한 점은 특히 선진국에서의 노인 인구의 벤조디아제핀 사용 만성화와 치매 발생건수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령 환자에게 벤조디아제핀 및 관련 제품의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시작할 때, 신중하게 혜택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사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덧붙인다.

관련 사설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 Kristine Yaffe 교수와 노화연구 전문 인디애나 대학 센터의 Malaz Boustani 교수는 벤조디아제핀이 2012년에 부적절한 노인 의약품으로 미국 노인 의학회 목록에 등재되었지만,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Yaffe 교수와 Boustani 교수는 이러한 약들의 장기간 복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정식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82282.php>